

# 大學入試制度는 定着되어야 한다

朴 道 淳

(高麗大 教育學科)

## I. 머리말

한국 교육이 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入試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大學入學試驗制度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입시철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가 분분한 문제로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입시제도가 변천되어 왔고 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대학 입학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대학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사회적 병리와 더불어 학교교육 불신 풍조, 그리고 교육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현실성에서 비롯되어졌다. 특히 교육이 개인의 사회계층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과 오랜 전통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문승상의 가치관 때문에 입시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지고, 이에 따라 입시제도 자체는 정착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변모를 거듭하여 왔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입시제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사회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입시제도 논의가 주로 교육 外的인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히 대처해 왔다는 점이다.

本稿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기능이라는 측면

과 1970년대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이라는 측면을 검토하여, 왜 입시제도 자체가 빈번히 바뀌어져 왔는가 하는 그 원인을 구명하여 앞으로의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 보려고 한다.

## II. 大學入試制度의 機能

대학입시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육을 소수의 엘리트층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입장과 대다수의 국민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대폭 확장하여 대학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대학입시제도의 기능을 역시 크게 들로 나누어지게 한다. 즉, 대학의 課程을 이수할 기본 능력이 있다고 관정되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선발하는 입장에서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교육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기회 확대라는 입장에서의 대학입시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받기에 적합한자의 선발이라는 입장에서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교육 기회 확대라는 입장에서의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관리를 강조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기본 입장은 위의 두 측면 즉, '수학 적격자 판별'과 '교육 정상화에의 기여' 기능을 同時に 효율화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 1. 大學 修學 適格者 判別 기능

대학 수학 적격자라는 말은 어떤 절대적인 수준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던, 요구되는 능력 수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수학자의 수자 제한으로 생기는 상대적 우월의 의미도 있는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 대학에서와 같이 定員 選拔의인 狀況에서는 위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진 것이 대학 수학 적격자라는 의미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수학 적격자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선천성이 많이 개체되는 기초능력 또는 일반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 修學適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반 능력도 學力도 기본적으로 후천적인 작용의 영향을 받은 학습된 능력이지만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學習 능력을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대학입시제도 속에서 學業適性檢査의 실시를 요구하게 되고 특수한 학문분야 또는 교과분야의 기초 지식을 터득하고 있는가라는 입장으로 능력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학입시제도 속에서 學力檢査의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에서 '修學 適格者의 판별' 기능에 대한 기본 입장은 '一般能力'과 '특수 學問의 能力'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학제도상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능력'의 평가는 제외되어 왔다. 그것은 대학입시제도에서 일반 적성검사나 능력 이외의 태도, 가치관 등과 같은 요인이 배제되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2. 高校教育 正常化에의 기여 기능

대학의 입시제도는 곧바로 고교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이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 오고 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는 고교교육을 종결산하는 외부적 평가의 기능을 일부 갖고 있기는 하나 그것에 의해 고교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고교교육과 밀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대학에의 교육열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은 '적격자 선발'기능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학입시가 고교 전 교육과정의 운용과 교육의 질을 규제하는 한,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 내신성적의 활용이나 학력고사에서 가능한 모든 과목을 포함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대학입시는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과 '고교교육 정상화에의 기여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 교사들에게 敎權 강화의 기능, 사회인들에게 '선발과정의 公正性'을 보여 주어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다.

## Ⅲ. 최근의 大學入試制度의 變遷과 現況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의 본고사, 고등학교 내신 및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었다. 이 제도에서는 1973년까지 대입예비고사 과목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실업 및 가정의 6개 과목을 부과하여 전국 단위로 단일 합격선을 정해 (150~180%) 명실상부한 자격고사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1974년부터 예·체능계를 신설하여 예·체능계 특기자를 선발했으며, 복수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0%의 합격선을 갖도록 부분적 수정을 가했다. 1978년도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의 4개 실

업 계열을 설정하여 동계 대학 진학 희망자들에게 특전이 주어지도록 다시 수정이 이루어졌다. 1979년도에 이르러서는 전문대학도 예비고사 합격율 의무화하고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수정이 또 한번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1980년 7월 국보위의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방안”에 따라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변혁을 시도했다. 즉 과거 30년 이상이나 유지되어 오던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었고, 면접이 점수화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부터 실시해 오던 대학입학예비고사의 성격이 자격고사에서 선발을 위한 합격고사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86학년도 입시에서부터는 대학별 논술고사가 입시 총점의 10%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입시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조짐을 다시 보이고 있다.

그러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입시제도의 변화 중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제 확대 실시, 그리고 논술고사 도입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제 확대 실시의 이유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게 된 이유로 제기되어졌던 것은 첫째, 대학 본고사가 주지교과(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위주로 출제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비정상화시켰고 둘째, 대학 본고사의 내용이 교과서의 범주를 벗어나서 난해하게 출제됨에 따라 고교생들이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되어 과외수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고 셋째, 대학입학예비고사에서 이미 평가한 내용을 반복하여 평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중의 입시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고교 내신제를 확대 실시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의 기여’라는 대학 입시 기능을 최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근거에서 출발한 것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내

신제 실시의 중요한 이유는 주입식 교육과 주지교과 위주로 운영되던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낙후되었던 교과와 그 교과 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교생의 대도시 유입 현상을 둔화시키며, 고질적 병폐(?)인 과열과의 현상을 조절시키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누증되는 재수생의 증가를 둔화시키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 2. 대학 논술고사의 실시 이유

대학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로 제기된 것은 첫째,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구성력, 조직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거의 평가할 수 없게 되는 내재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둘째, 신입생 선발에서 소외되어진 대학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이고 셋째, 고교교육의 지식 위주 경향을 분식시키며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Ⅳ. 최근의 大學入試制度 變遷 過程에서 의 問題點

대학입시제도는 1980년초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고, 1986년에는 논술고사 실시가 추가되어졌고 1987년에는 대학학력고사 과목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문지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대학 자체에 의한 대학입시’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1970년 이후의 입시제도 변화의 諸理由를 ‘입시제도의 기능’과 ‘입시제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 1. 입시제도 기능의 측면

大學入試制度의 2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격자 선발’ 기능과 ‘고교 정상화에의 기여’ 기능에 따라 우리 나라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입시제도를 바꾸거나 수정할 때의 이유로 제시되었던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두 기능에 모두 부적합한 계도로 변화되어진 것 같다.

우선 '수학 적격자 선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입학예비고사의 학력고사에로의 전환은 '수학 적격자 선발 기능'의 의미를 선천적인 기초 능력과 후천적인 학력이라는 두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되거나 결과적으로는 선천적인 기초 능력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자격고사와 같은 절대적 의미의 修學適格者 선발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단지 定員選抜의인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의 일부를 포기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고교교육 정상화와의 기여라는 입시 기능을 위해 채택된 고교 내신제도는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부수적으로 과외 해소, 재수생 증가 둔화 등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명분에서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진인교육, 인격 형성 등의 교육은 거의 도외시되고 학원식 운영(?)으로 암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내신제도에 따라 과외 해소, 재수생 증가 둔화 등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불행하게도 거의 무너졌으며 (과외 해소는 입시제도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사법적 단속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내신제도가 갖고 있는 '不公正性'의 문제가 오히려 현행 입시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 2. 大學入試制度 一貫性의 측면

1969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예비고사제는 문교정책 중 가장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여 준 제도 중의 하나였다. 부분적인 수정이 있기는 했으나 그 근본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1980년 이후 학력고사로 바꾸어지면서 그 기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고, 변화된 제도 역시 1987년에 다시 수정될 예정이며, 1987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보면, 지속적이고 일

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大學入試機能에 대한 立場이 명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입장이 잘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그때 그때 파생되는 현실적 문제 해결만을 시도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 V. 大學入試制度 改善의 基本 方向

어떤 대학입시제도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제도가 갖고 있어야 할 기본 방향 내지는 전체에 대한 합의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 합의로써 입시제도가 일관성 있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정책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본 입장이 쏠 수 있기 때문이다.

### 1. 學生 選拔에 대한 大學의 權限과 自律性 強化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대학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천편 일률적인 대학은 대학이 본도로 설치되어질 근거를 그만큼 약화시킨다. 대학의 전통과 특성은 계속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과 세월을 필요로 한다. 입시제도가 이러한 대학의 전통과 특성이 무시되도록 마련되어진다면 그것은 기본 방향에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 학교에 수학할 학생은 그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수와 학생을 연결시켜 주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교 권한의 축소 는 기본적인 敎育權의 문제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대학이 똑같은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선발 권한과 자율성의 강화는 입시제도 마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대학에 주어지지 않는 한, 대학의 자

을성은 가능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입학력고사, 내신제, 면접, 체력장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 또는 민간 기구에 의한 대리적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사선택의 권한, 전형 방법의 비율, 사정 방식 또는 부수적인 대학 본고사의 실시 등 일체의 내용이 대학에 일임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어떤 대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 하나만으로도 입시 전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위에 제시한 것을 적절한 비율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또 다른 대학은 대학 본고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방화, 자율화 등의 국가 기본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銓衡方式의 다양화

이것은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관련되어진 것으로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방식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형 방식이 면접, 실기, 추천, 서류심사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이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전형 일수, 전형 회수, 전형 과목 등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학교에 따라 다양화되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까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출제 형식도 다양화될 수 있어야 하고 점수 산출방식도 학교, 계열, 또는 학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이 주어져야 하고 그 권한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원칙은 입시 제도에 관한 대학 자율화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사회 정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方向이다. 궁극적으로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포함된 내용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大學入試制度 政策 方向의 一貫性

대학입시제도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입시제도가 부분적으로도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 입장이나 방향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본 원칙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선발에 대한 대학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가 전형방식의 다양화와 상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입시제도 정책의 方向이 內的 一致性과 持續性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